

가르침의 길, 함께 걷는 우리

빛을 잇다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소식지 Vol.1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측 QR 스캔) →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 02-2164-4173, 4176, 4787
E-mail : education4787@catholic.ac.kr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독서교육전공

이창희 교수님 환영합니다

2025년 9월, 독서교육전공 전공주임 교수 부임



학부 시절부터 약 20년간 독서교육 연구에 매진해온 이창희 교수님이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에 부임하셨습니다. 이창희 교수님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독자의 이해, 표현 과정을 탐구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계십니다. 독서교육 전반에 관심이 많으시기에 앞으로 교육대학원생들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전하셨습니다.

2025 신입생 증강기념 탐방



[독서교육전공 44기 강연주]

공공도서관에서 사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연주 동문은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첫 학기를 마무리하며 동기들과 함께 국회도서관에 방문하는 탐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교육전공

조용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상담교육전공 조용주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공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교수님의 노고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교수님의 교육적 가치와 전공에 남기신 발자취는 앞으로도 오래 기억 될 것입니다.



강수정 교수님 환영합니다

2025년 3월, 상담교육전공 전공주임 교수 부임

상담심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강수정 교수님이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전공주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상담교육전공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천 중심적인 교육 및 수련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담교육전공 동문회 블로그 개설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상담교육전공 동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상담교육전공을 소개하고 소식을 전하는 공식 네이버 블로그도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담교육전공의 소식과 정보를 전공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ounselingedu_cuk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세미나 진행(25.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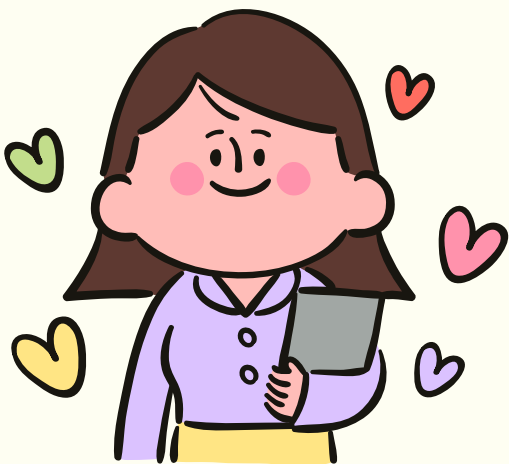
2025년 6월 20일, "특수교육 학교 현장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국환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김라경 교수님과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소속 특수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진은 각각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의 실제,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과 함께 실제 특수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직업특수교육전공

김윤미[2023년 졸업생]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 19학번 김윤미 입니다.

Q. 교육대학원 진학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교육대학원 재학을 하며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배운 내용들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수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행동수정] 입니다. 최신 행동수정
에 대한 적용과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해준 수업입니다. 교육
자로서 가치와 윤리에 대해 깊이 의미있는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수업도 있었고, 진단 및 평가 업무를 하며 직접 보고서 작성을
하는 수업도 참여했었는데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동문들에게 한 마디

A. 공부를 하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며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즐겁지만은 않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대학원
생활을 뜻깊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유아교육전공



이정숙 동문
(10기/06년 졸업)

-숲생문화에듀센터 대표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이사/부천지회장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퇴임 후, 산림청 산하 산림전문업체에 등록된 유아숲 활동과 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숲생문화에듀센터를 운영하며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숲해설가 과정을 이수중입니다.

Q. 대학원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A.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동문회를 시작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동문들이 함께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Q.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A.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의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졸업 후에도 현장 곳곳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는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한선희 동문
(24기/14년 졸업)

-청심유치원 원장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 궁리를 하는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놀이'를 주제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Q. 대학원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A. 선배들과 논문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A.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시작하는 대학원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로진학상담전공

진로교육 전문가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동문: 진로상담 직무연수 개발



11기 정무훈/ 11기 이시은/ 13기 김동춘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이 학생들의 진로상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기 위한 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해당 연수과정은 티처빌 교육연수원에 '선생님은 너의 진로가 궁금해' 라는 제목으로 개설되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상담 사례와 실천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진로진학상담전공을 통해 함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 선생님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티처빌 연수 바로가기

가톨릭대학교 교육연수원 진로진학상담 1점 자격연수 시행

가톨릭대학교 교육연수원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15일간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진로전담교사 65명을 대상으로 '2025 하계 전국 진로진학상담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실시 했습니다.

3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전국 진로전담교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전공은 진로전담교사를 양성하는 부전공 과정과 진로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전공

이광훈(2017년 졸업)

1. 현재 하고 있는 일?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이론 과목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학습자들의 성장과 언어적 성취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2. 대학원 진학 동기?

학부 전공은 역사문화학이었지만 전문성 확장, 언어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어교육 분야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가톨릭대학교의 뚜렷한 교육철학이 대학원 진학에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3. 졸업 후 전공과의 연계 및 성과?

석사 과정 이후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전공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에도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교육대학원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태도와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꾸준히 탐색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의심을 품지 말고, 그 길을 향해 달리세요! 두려움은 자신을 작게 만들 뿐입니다.

평생교육전공



장제현(재학생)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진학동기]

저는 직업훈련분야에서 NCS 기반 훈련 교사로 약 2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던 중, 사회의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 분야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평생교육은 나를 위한 투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깊이 있는 시야를 가진 신중년 세대가 교육의 현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인석(재학생)

[기억에 남는 수업]

수업을 들으며,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개론을 통해 공교육 밖에서도 배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개발론과 평생교육방법론에서는 제가 기획했던 활동들이 이미 여러 교육 방법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성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교육 철학**을 지닌 학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김문경(졸업생)

[졸업 후 전공과의 연계]

현재 저는 마을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여러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예비 활동가분들과 사업 담당 평생교육사 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을평생교육사로서 지역 활동가분들의 활동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마을 강사로도 참여하며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고 현장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의 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